

## 언어적 도발<sup>1)</sup>

김갑년(고려대)

### 0. 머리말

언어적 도발은 인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행위에 속하며, 다양한 형태와 효력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도발은 - 두 가지 예만 들자면 - 아이러니한 암시나 큰소리로 표현된 직접적인 비난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을 자극하려는 화자의 목적은 항상 동일하다.

본고는 독어텍스트를 바탕으로 언어적 도발을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 예를 근거로 하여 연구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며 언어적 도발의 목록작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동사 “도발하다 Provozieren”의 어원상의 유래에서 출발해서, 이 논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도발의 원인과 그 경과를 조사하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서 도발의 다양한 형태들을 조사한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는 언어적 도발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있었던 토론회를 분석한다. 필자가 조사한 텍스트는 1980년 연방의회선거에 있던 각 정당의 4명의 수상후보들이 벌였던 토론회를 비디오로 녹화된 것을 옮겨 적은 것이다.

본고는 언어적 도발의 포괄적인 서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본고는 그보다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가능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시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논문을 쓰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이차문헌이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의 알기로는 아직까지 언어적 도발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몇몇 전문서적에서 단지 하부 장이나 주해의 형태로만 이 테마를 다루었다.

---

1)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Post-Doc. 연수과정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1. “도발 Provokation”, “도발하다 provozieren” - 개념정의

어원상으로 동사 “도발하다 provozieren”와 그에 속하는 명사 “도발 Provokation”은 라틴어 동사 “provocare”에서 유래하며, 이 동사는 접두사 “pro 전, 앞으로”와 동사 “vocare 부르다”의 합성어이다. 동사 “provocare”의 원래의 중립적인 의미는 “앞으로 또는 바깥으로 부르다 hervor- und heraufrufen” 또는 “불러내다 aufrufen”이지만, 발전된 의미 그리고 해석된 의미는 “요구하다 auffordern”, “고무하다 anregen”, “자극하다 reizen” 또는 “도전하다 herausfordern”이다. 신고지 독일어의 단어 “provozieren”은 라틴어 “provocare”에서 차용된 말로서 16세기에야 비로소 일반적인 언어관습에 이르렀으며, 이때 오비드 Ovid에 유래된 “자극하다”와 “도전하다”의 의미로 처음부터 부정적인 특성을 가졌다. 이러한 좋지 않은 의미의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도 계속 유지되었으며, 현대어에서도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브록하우스 Brockhaus”와 “바리히 Wahrig”사전에서는 “누군가를 무분별한 행동이나 언행을 하게 하다”로 해석되어 나타나며, “현대독일어 사전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에서 “provozieren”은 “어떤 (불쾌한) 것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 또는 야기시키다”, 또는 “누군가를 특정한 때때로 무분별한 행동으로 이끌다”의 의미로 이해되어진다.

이러한 해석들에서 명확해지는 것은, 비언어적인 도발이나 본고에서 분석되는 언어적 도발은 상대방을 원래 그 자신이 행하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행동으로 유도하려는 화자의 확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행동을 상대방은 하고자 하지는 않지만, 도발에 의한 자극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하도록 유도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때에 도발된 행위는 대부분 화자의 뜻에 따라 일어나며, 도발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도발은 계산이나 의도성에 근거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려는 목표를 가진 “도발자”의 의식적으로 원해진 행위이다. 이로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화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발하고, 이 사람이 그 도발을 그 자체로서 인식할 때만 도발의 순수한 형태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 2. 언어적 도발의 원인과 진행

### 2.1. 필수조건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적 도발은 항상 공격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언어적 공격이나 그 안에 내포된 도발이 생성되기까지는 다양한 기본전제조건들이 필요하다. 갈등이나 공격성이 전개될 수 있는가는 우선 양측의 근본적인 대화용의에 달려있다. 대화를 하고자 하는 양측의 의도는 아주 적을 수 있지만 공격성이 표현되는 최소한의 대화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sup>2)</sup> 그러한 의사소통의 기반이 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기반으로서 갈등에 대한 대화상대자들의 입장이 분석되어야 한다. 즉 공격으로의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도발로의 확실한 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발용의의 원인들은 응답의 장애에 있다. 응답적으로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제영역이나 관련영역 또는 행동영역에서 *앞선 대화자의 언급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응답이 방해되는 것은 최소한 대화자의 한 사람이 그 대화에 협조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키너 Kiener는 이러한 조건을, “한 사람의 공격자와 한 사람의 희생자가 있는 사회적인 상호행위”라고 특징지었다. 이때에 공격자는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는 결국 개별 화자들의 언어적인 능력이나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 도발이 서투르게 행해질 수 있는가 또는 언어적으로 우아하게 행해질 수 있는가는 그 능력들에 달려있다.

### 2.2. 도발의 종류

공격성이나 도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소통이 이해영역에서 방해받은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에 수용자는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이러한 잘못된 전거나 잘못된 이해의 결과로서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수용자가 공격

2) 샹크 Schank (1987: 35).

을 받고 도발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유발의 전형적인 예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언어적 발화를 잘못 해석하거나 한 화자가 무지로 인해 특정한 관습을 어기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로 인해 상반성이 야기된다. 키이너는 이러한 언어적 발화의 잘못된 해석의 결과로서, 청자에게서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 좌절감이나 스트레스를 보고 있다: 비평가는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쉽게 비방된다: 비평가가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할지라도, 비판대상자가 잘못을 지적한 것을 편파성이 없이 미학적인 규범에 대한 관심에서 일어난 것인지 비방하는 것이 즐거워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험에 대한 상이한 입장, 그것이 좌절감이나 공격으로 느껴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은 관계된 자에게 일어나는 자극의 양태와 높이에 영향을 끼친다.<sup>3)</sup> 그러나 언어적 도발의 그러한 형태는 엄밀한 의미에서 도발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도발은 화자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았으며 단지 청자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인식오류에 기인한 잘못 이해된 또는 “의도되지 않은 도발”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렇게 생성된 도발은, 그 의도되지 않은 도발의 출발점인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언급의 실제 의도를 설명하고 악의가 있는 부당한 것으로 해석된 것은 상대화시키면 금방 제거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두 번째 도발의 형태는 이미 1장에서 암시했던 것처럼 의도적이고 반규범적인 언어적 공격인데, 그 공격은 청자도 그렇게 이해한다. 고프만 Goffmann은 이러한 도발의 실제 시작을 한 대화상대자의 언어적 행위에서 보고 있는데, 이 대화상대자는 다른 대화자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규칙을 위반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자신이나 그 자신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규칙위반의 목표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도발이다.”<sup>4)</sup> 이러한 의도적이고 실질적인 도발유형에 대한 반응은 매우 상이할 수 있다: 저항, 즉 도발을 통한 결투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도발된 내용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는 복수로서 즉각적

3) 키이너 (1983) 참조.

4) 고프만 Goffmann (1975: 203).

인 공격, 스토아적인 도를 잃지 않는 침착함 또는 거칠고 제어되지 않는 분노 - 공격당한 사람의 가능한 반응은 전적으로 이러한 도발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치수가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있다.

논쟁에서 언어적으로 행해지는 도발이 일어나는 데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도발적인 발화가 대화가 시작될 때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도발은 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한 도발은 그 도발이 언어적으로 공격을 주고받는 실제 이유이기 때문에 시작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언어적 도발은 이미 시작된 논쟁 중에도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이는 대화상대자를 (계속해서)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경솔한 언행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게 하거나,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형태의 도발은 도구적인 형태, 다시 말하면 언어적 논쟁에서의 수단이다. 도발을 이용하는 세 번째 즉 마지막 가능성은 대화를 중단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가 청자를 매우 자극해서 청자가 대화를 중단하고 화자를 떠나거나 그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불가능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자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청자가 상황을 조정하는 행위로 냉정한 도발에 반응하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가벼운 사과나 미소 또는 진부한 대답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도발되어진 사람에게서는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일부 소실을 의미하며, 이미지 손실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마찬가지로 대화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도발의 종류를 필자는 결말적 특징을 가진 도발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장에서 시도된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그림이 가능하다.

#### 도발

의도되지 않은 도발	의도된 도발
(방해된 의사소통을 통해)	(세 가지 하부종류로 구분)
	- 시작적 도발
	- 도구적인 도발
	- 결말적 도발

### 3. 도발의 형태들

본고에서 필자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의도된 도발에 속하는 그룹이다. 그 이유는 이전 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도되지 않은 도발은 잘못된 이해의 그룹에 속하며, 그래서 실제 의도되고 계획된 도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고의 관찰대상은 의도된 도발이다.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도발의 의도는 항상 같은 반면에, 어떻게 도발이 언어적으로 실행되는가를 다루는 넓은 영역이 있다. 이때 도발은 거의 부정적인 발화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적인 발화에는 예를 들면 비난, 조롱 또는 가치절하와 같은 언어적인 표현이 포함되는데, 이 표현들은 보통의 경우 일반적 언어사회적인 관습에서 매우 불친절하고 공격적인 특징을 갖는다. 긍정적인 발화들은 도발이 이루어질 때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축하한다”나 “감사한다”와 같은 첫눈에 친절한 표현은 도발이라는 관점에서는 실제로 아이러니한 발화수반행위로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의 예가 그것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사장: “여러 해 함께 일하면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활동적인 도움으로 실제로 잘 되어가던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축하 드립니다.

이제 도발의 몇몇 언어행위의 형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3.1. 비난하다 *tadeln*, 비평하다 *kritisieren*, 훈계하다 *zurechtweisen*

비난, 비평, 훈계는 청자를 종종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 청자는 화자가 예를 들어 청자의 태만함을 비방하거나 또는 그에게는 괴로운 일을 언급하기 때문에 화자 측으로부터 도발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행위의 도발은 비난, 비평, 훈계가 정당하지 않다면 청자에게 도발 그 자체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알프레드 안더쉬 *Afred Andersch*의 소설 “살인자의 아버지”의 한 부분은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줄 것이다. 이

소설은 1920년대에 뮌헨의 한 고등학교에서의 이야기이다. 그 학교의 3학년 역사시간에 갑작스러운 교장의 방문이 서술된다. 교장인 힘플러, 그리고 몇몇 학생들과 그리스어선생인 칸들빈더 박사와의 갈등이 그 내용이다.<sup>5)</sup>

힘플러: 칸들빈더 박사, 내가 내 학교에서 어떤 정치적인 휘장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칸들빈더: 나는 학생들에게 바로 그 점을 언제나 언급했습니다.

칸들빈더 씨에 대한 도발은 교장인 힘플러 씨의 비난에 있다. 그에 따르면 칸들빈더 씨는 교장의 지시를 무시했으면 학급에서 그 지시가 따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칸들빈더 씨의 견해에 따르면 정당하지 않았다.

### 3.2. 의심

의심의 말 또한 상대방을 예를 들어 공공연하게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도발적인 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비록 화자는 그의 의심이 확실한 근거가 없고 단지 추측이나 추론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의심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정치가 A: 당신은 분명 당을 이끄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군요. 바로 당신의 태도나 당신의 당 동료들의 태도가 세금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가 B: 내 당에 일관된 노선이 없다는 의심을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5) A. Andersch, Der Vater eines Mörders. Eine Schulgeschichte. Zürich 1980. S. 67.

### 3.3. 중상, 불신용, 비방

한편으로 중상, 불신용, 비방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의심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일상적인 언어습관에서는 때때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의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의심을 최소한 가능하다고 보이게 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된다. 그러나 중상자는 다른 사람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그 사람의 명성을 해치는 그의 말이 창작되어졌고 날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상, 불신용, 비방은 그 대상자를 도발하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중상, 불신용, 비방은 흔히 대상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A: 당신은 그 당시에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았고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B: 그것은 저질적인 비방입니다. 당신은 사고가 난 시각에 내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명예를 훼손시키는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3.4. 고발 anklagen

고발은 예를 들어 잘못된 계산, 태만, 잘못된 조치, 무위, 또는 월권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 고 발은 한 사람의 또는 예를 들어 당과 같은 한 그룹의 표면상의 또는 실제의 실수행위를 명백히 제시하고 가능한 한 동시에 고발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여한다. 그러한 실수행위가, (대중의) 정당성을 얻고자 또는 피의자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잘못 또는 엉터리로 제시될 경우에, 그러한 고발은 도발성을 내포한다.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발자는 항상 실제사실을 끌어들인다. 예를 들면:

정치가 A: 당신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가재정의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가 B: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국가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3.5. 주장 behaupten, 비방 vorwerfen, 책망 bezichtigen

주장, 비방, 책망들은 고발과 반대로 화자가 상대방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주장, 비방, 책망이 부분적으로나 혹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면 그 주장은 상대방에게 도발로서 작용한다.

게오르그 (손님들에게도) : 우리 아들은 계속해서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타가 우리 아들의 뒤를 끊임없이 쫓아 다녔기 때문입니다.

마르타 (소리치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결코 그의 뒤를 쫓아다니지 않았습다.<sup>6)</sup>

### 3.6. 경고(warnen), 위협(drohen)

경고나 위협은 화자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때 화자가 다른 사람을 그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고자 하는 상황일 때 도발은 일어난다. 위협당하는 사람이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양보할 것이라는 것을 화자가 알고 있으면 경고나 위협의 말들이 행해진다. 어쨌든 위협에 의해 언어적으로 위협 당한 사람의 자아가 공격되고 도발된다. 그러나 위협 당한 사람이 그 위협이 공허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그 자신이 그러한 위협으로 전혀 제압되어질 수 없을 때, 위협과 경고는 그에게는 오히려 즉각 저항되어져야 할 도발로 이해되어진다. 예를 들면 다음의 예와 같다:

6) E. Albee, Wer hat Angst vor Virsinia Woolf ...?, Frankfurt 1983. S. 123.

게오르그 (닉에게): 반박하지 마! ... 내가 여기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지? 스캔들로 인해 너의 계획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 맞지? 그럼 앉아라!

(닉이 앉는다)

### 3.7. (직접적인) 도전 *direkt herausfordern*, 행동으로의 강요 *in Zugzwang setzen*

1장에서 보았듯이 사전에서 도전하다라는 단어는 도발과 거의 동의어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도전의 특성을 강조하는 약간 다른 방향의 해석이 시도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여러 예들은 예를 들면 주장, 경고, 고발 등 다양한 발화형태로 나타나는 도발의 숨겨진 형태인 반면에, 도전은 도발의 직접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도발의 한 가능성으로 예를 들어 “너는 매우 겁이 많아서 자동차 하나도 훔치지 못할 정도로 베팅이 없구나” 같은 발화가 있다. 그때에 상대방은 예를 들어 그의 명예나 다음의 예에서처럼 그의 능력을 공격하는 직접적인 도전으로 말미암아 경솔한 언행을 할 수 있다:

칸들빈더 선생: 앞으로 나오거라.

학생, 폰 그라이프: 기꺼이요, 칸들빈더 박사님!

힘믈러 교장: 아, 여기 우리의 젊은 남작 그라이프가 있군. 나는 이미 자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네. 그라이프, 자네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인이라고 하더군. 그러나 자네가 다시 한 번 교수님 대신에 박사님이라고 마음대로 부른다면, 나는 자네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한시간 동안 금고형에 처하겠네. 알았나 그라이프?

학생, 폰 그라이프: 그러나 선생님 자신이 ...?

힘믈러 교장 (말을 끊으면서): 좋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시간 동안 금고형이네.<sup>7)</sup>

---

7) A. Andersch, 1980: 37ff.

## 3.8. 야유 bewitzeln, 빈정 ironisieren, 비꼼 sarkastisch sein, 조롱 verspotten

야유, 빈정담, 비꼼, 또는 조롱<sup>8)</sup>은 악의 없는 농담과는 반대로 매우 적대적인 특성을 가지며, 흔히 특정한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을 겨냥하고 있다. 대부분 이러한 발화형태에 조소와 경멸이 연결되어 있으며, 조소와 경멸은 빈정거림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비꼼을 당하는 사람을 도발한다. 비꼼과 조롱의 하부형태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암시, 악의 또는 풍자가 있다:

게오르그: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 요양원에 잠깐동안 몰래 들어가 보고 싶네. 자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

닉 (냉정하게): 이해할 수 있네.

게오르그: 당신은 이미 한 번 맛은 보았지 않은가.

닉: 노력할걸세 ...

게오르그: 같이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네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나?

닉: 그래 그것을 말하고 싶었네.

게오르그: 공감할 수 있네.

닉: 그것은 나에게서는 정말로 괴로운 일이지.

게오르그 (비꼬는 듯): 아, 정말로?

닉: 그래, 맞아. 아주 괴로운 일이지.

게오르그 (닉을 흉내내면서): 그래, 맞아. 아주 괴로운 일이지. (그리고 나서 자기자신에게) 그것은 메스꺼운 일이야.

닉: 부탁이네. 나는 정말 아무 것도 ...

게오르그: 메-스-꺼-운<sup>9)</sup>

I) 평가절하 abwerten, 깎아내리기 herabsetzen, 욕되게 함 abqualifizieren

8) 이와 같은 화행의 사용조건에 관하여는 김갑년 1997 참조.

9) E. Albee, S. 56f.

한 사람 또는 그의 능력과 행동을 평가절하하고, 깎아 내리고, 욕되게 하는 것은 도발의 매우 심한 형태이다. 그러한 발화는 한 인물의 자아에 직접 적용되고 이로 인해 당사자가 심한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명백한 경멸을 나타내며, 더불어 대부분 매우 냉담한 성질과 연결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힘물러 교장: 자네가 비록 내 명칭을 올바르게 불렀다고 했을지라도, 나는 자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자네 담임 선생을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부르게. 자네가 라틴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쥬피터에게 해도 되는 것은 소에게 해서는 안된다. (Quod licet Jovi, non licet bovi)”

학생, 폰 그리이프: 저는 기르는 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주피터가 아니십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프라이헤어 폰 그라이프 일뿐입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힘물러 교장선생님 그 이상은 아닙니다.

힘물러 교장: 자네의 귀족 타이틀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 그라이프군. “그라이프”, 그것은 원래 많은 기사들이 사들였던 별명이었지. 그리이프, 그리프, 그립, 그 양반들은 자신을 전설적인 육식조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들 불렀지. 그들중 대부분은 원래는 농부들을 상대로 하는 이름 없는 고리대금업자들인데, 어떤 봉토관리인이 그의 마을 중에 하나를 감독하라고 채용한 사람들이었었지. 그들의 후손들은 그라이페라는 도둑기사들이 되었고, 그들은 어떤 경작지 이름을 또 샀지. 그런데 프랑크 아래지역 출신의 그라이프사람들은 거기까지 이르지도 못했지.<sup>10)</sup>

### 3.9. 고집 *insistieren*

어떤 말이나 사실 또는 특정한 사태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한 화자는 말해진 것에 그것에 속한 것 이상의 무게를 주려고 시도하거나 무엇인가를 진리이고 옳다고 이야기하려 한다. 이러한 계속되는 그리고 비객관적인 반

10) A. Andersch, S. 46ff.

복은 청자를 도발하고 그의 공격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고집스러운 주장은 자주 주장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마르타: 달은 뜨지 않았고, 나는 침실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는지 보았어.

게오르그: 침실에서?! 내가 밖에 있었을 때 달은 비추고 있었다.

마르타: 달이 비쳤을 리 없어.

게오르그: 비쳤어. 그리고 그 달은 여전히 비추고 있어.

마르타: 달은 비추지 않아. 달은 이미 졌어.

게오르그: 달은 비추고 있어. 달은 떠올랐어.

마르타: 내가 착각하는 거야.

게오르그: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sup>11)</sup>

### 3.10. 부당한 확대 *unzulässig erweitern*, 부당한 일반화 *unzulässig verallgemeinern*

부당한 확대나 일반화에서는 한 사건의 부분이 전체로 확대되어 비논리적으로 추론된다. 이때에 추론된 결론은 보통 논리적이지 못하다. 화자는 이러한 언어수단을 가지고 상대자를 도발할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예를 들면 그의 먼저 했던 말을 쉽게 바꾸거나 날조한다:

화자1: 이 넥타이는 이 일에 어울리지 않고, 게다가 보기도 아주 좋지 않아.

화자2: 그래, 그래, 나도 이미 알고 있어 - 나는 정말 못생겼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네 생각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고 싫은 거지. 너는 나를 항상 비판해야만 해.

화자1: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단지 청색점이 짙혀있는 분홍색 넥타이가 너의 검은 양복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야. 특히 오늘날처럼 장례식에 가려고 할 때 더욱 그렇다는 거야.

11) E. Albee, S. 119.

### 3.11. 의사 진행 방해 *filibustern*, 주제에서 벗어나기 *abschweifen*, 회피 *ausweichen*, 은폐 *verschleiern*

의사 진행 방해, 주제에서 벗어나기, 회피, 은폐의 경우에 대화의 진행이 한 화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방해된다. 대화상대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언어구사에 방해를 받게 되며, 그로 인해 도발되어진다. 이렇게 주제를 벗어나는 뜻은 예를 들어 자신의 실수를 감추거나 화자의 장점을 두르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흔히 의회에서의 논쟁에서 볼 수 있다.

### 3.12. 기만 *täuschen*, 모르는 체 하기 *sich dumm stellen*, 거짓말 *lügen*

기만, 모르는 체 하기, 거짓말의 경우에 화자는 의도적으로 계산에 의해 자신의 지식을 숨긴다. 청자에 대한 도발은, 청자가 (거의 항상) 화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지식에 반해서 말한다는 것을 (거의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데에 있다. 청자는 그렇게 바보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화자1: 누가 내 접시의 것을 먹었지?

화자2: 몰라, 난 못 봤어.

화자1: 못 봤다니, 그건 있을 수 없어! 너는 지금까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는 무엇인가를 보았음에 틀림이 없어. 너는 누가 내 저녁식사를 먹었는가를 나에게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어.

### 3.13. 무시 *ignorieren*, 피하기 *schneiden*

도발의 비언어적인 형태는 무시이다. 한 사람이 화자의 말에 의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화자도 그것을 또한 알아채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러한 대화 속의 말들을 표면상 경시함으로써 화자를 도발한다. 그러한 예는 흔히 대화광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토론에서 나타난다.

위에서 열거했던 도발의 발화형태들은 독자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정의할 수 있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보통 도발이 일어날 때 다양한 발화형태들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난을 조소 조로 말할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차를 나무 앞으로 몰았지.”), 또는 위협적으로 말할 수 있다 (“당신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먼지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이러한 비어법의 중복에 부차적으로 도발의 경우에 사용되는 말의 세기가 집중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수단만을 가지고도 이미 아주 세밀하고 명백하게 도발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소리나 소동의 목표는, 도발된 사람을 도발의 내용과 더불어 공공연히 위압하거나 그를 도발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절제되고 조용히 말해진 도발도 마찬가지로 위협적일 수 있으며 큰 소리로 말해진 도발 때와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언제 어떤 도발의 집약도가 화자의 측에 이로운지는 말하는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에 (예를 들면 증인이 없거나 관중이 있는 경우)에 달려 있다.

#### 4. 실제 일어난 대화에서의 도발

##### 4.1. 머리말

지금까지는 어떤 언어 행위들로 도발이 일어나는가를 나열해 보고자 했으며, 이제 다음에서는 실제 일어난 대화를 언어적 도발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서 본고는 사민당 SPD, 자민당 FDP, 기민당 CDU, 기사당 CSU의 네 명의 수상 후보들이 벌인 토론의 한 부분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 토론은 1980년 연방의회선거를 맞아 1980년 10월 2일 독일 ARD 방송과 ZDF 방송이 “선거 3일전”이라는 제목아래 생방송으로 중계하였다.

이 토론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러한 종류의 토론에서 당시 직면해 있던 선거로 인해 토론참여자들이 정치적 경쟁자들을 도발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충분한 이유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했다. 그와 더불어 도발의 생성과 경과의 응집된 형태를 희망할 수

있어야 했으며, 말하는 스타일이나 주장의 양상이, 다른 좀더 느슨한 토론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도발을 목표로한다는 것이 가정될 수 있었다.

토론이 생방송이라는 상황은 또한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그러한 토론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열렸다. 그와 더불어 정치가들의 태도나 주장은 처음부터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토론자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자들을 향한 독백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깎아 내리는 것이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종류의 토론에서는 토론의 대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선전적인 기능이 최우선이었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자기 표현, 그리고 그들에 의해 대변되는 당의 이미지가 네 정치가들 모두에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그들의 언어 행위를 규정한다. 이러한 표현태도에서 네 정치가들 개개인의 전략을 알아낼 수 있다. 즉 상황에 대한 그의 판단, 그것에 의한 토론참여자들의 평가,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행위들의 한 범례를 알아낼 수 있다.

둘째로 두 정치가 헬무트 슈미트(SPD)와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CSU)가 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언어적 도발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련된 수사법이 보장된다. 이 토론이 이미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선택되었으며 그 후 여러 연방의회선거에서나 최근의 토론에서는 수사학적인 세련미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정치가들에게서 언어적 능력이 후퇴되어졌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 정치토론과 마찬가지로 흥미롭지 못하다.

#### 4.2. 기록에 대하여

생방송된 토론의 대화를 옮겨 적은 텍스트를 소개하기 전에 우선 기록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기록이라는 것은 항상 대화를 단지 글로 재생산한 것이며, 그래서 다른 인식기반의 영역에 있다. 우리는 토론을 일반적으로 시각적일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 인지하고 좇는 반면에,



기록된 글에서는 청각적인 부분은 완전히 제한되어진다. 그로 인해 토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형성되는 필연적인 결과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기록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마를 찡그린 다든지 또는 냉정한 눈빛 그리고 음절이나 단어들의 강조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은 거의 재현될 수 없거나 고려되어지지 않고, 잘해야 불충분하게 재현되고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그 토론에 근접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나온다. 분석자로서 필자는 그 토론을 “일반적인” 관중으로서 또는 대화상대자로서 체험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도발적인 언행이 눈에 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대화상대자들만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도발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로 인해 기록된 것은 항상 단지 토론의 부정확한 재생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그럼에도 기록 없이 상세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단지 기록만이 토론을 언어학적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디오녹화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토론의 규칙성과 구조가 전체적으로 쉽게 인식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며, 토론이 문서화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기본 텍스트는 위에서 언급했던 “선거 3일전”이라는 방송의 기록이며, 이 기록은 필자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약 180분간의 토론 처음의 반 분량이다. 정치가들의 평균 5분 여에 걸친 모두발언에서는 정치적인 상세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 발언들은 본고와 연관하여 중요하지 않으며 보통 자기과시 목적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필자는 기록을 할 때 단지 도발이 나타나는 부분들에만 제한을 하였다. 필자는 분석자료를 가능한 한 매우 주의 깊게 선택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괄호 안에 세 점으로 표시된 생략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흐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함이다.

#### 4.3. “선거 3일 전” - 텍스트자료.

수상 후보들의 토론회 “선거 3일 전”: 1980년 10월 2일의 독일 ARD 방

송국과 ZDF 방송국의 공동 방송.

사회자: 칼 바이쓰 (ARD)

라인하르트 아펠 (ZDF)

토론회: 헬무트 슈미트 (SPD), 연방수상

한스 디트리히 겐서 (FDP), 외무부장관

헬무트 콜 (CDU), 당의장

프란츠-요셉 스트라우스 (CSU), 바이에른 주지사

사회자에 의해 토론의 규칙이 설명된다. 아펠은 분명하고 공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이어서 바이쓰가 발언을 2분 안에 해달라고 요청하고 전 발언자의 비판에는 단지 짧게 대응해 달라고 말한다. 토론이 시작된다. 토론의 시작으로 두 사회자가 참가자들에게 선거유세동안 겪은 특별한 일들이 있는가 질문한다. 이 질문의 목적은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쓰에 의해 언급된 첫 번째 테마는 동구정책이며 그와 연관된 동서독문제이다. 이 테마에 관하여 콜이 동구권에 대한 이성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증진에 관한 CDU/CSU의 의지를 강조하고 연방정부의 동독서기장 호네커와의 대화방식을 비판한다. 겐서가 바로 응대한다:

Genscher: Deutsche Ostpolitik ist Teil der gemeinsamen festlichen Ostpolitik.

Im Gegensatz zu dem, was Dr. Kohl im Auftrag vor-getragen hat, stützt sich die deutsche Ostpolitik auf die gemeinsame westeuropäische Ostpolitik.<sup>2</sup> (...) Das heißt, die Außenpolitik der Bundesregierung ist Teil der gemeinsamen westlichen Politik, und ich glaube, daß die Unionsparteien in der Frage der Unterzeichnung der KSZE-Schlußakte in Helsinki eine isolierte Position vertreten.<sup>3</sup>

Strauß: Ich darf einiges zurechtrücken. Niemand (...) hat die Aufhebung des Schießbefehls zur Voraussetzung für ein Treffen gemacht.<sup>4</sup> Ich habe mir aber erlaubt, dem Herrn Bundeskanzler einen Brief zu schicken. Gerade weil ich von der bayerischen Grenzpolizei gehört habe, daß die

Schießanlagen an der deutsch-deutschen Grenze (...) wieder ausgebaut werden. (...) Ich habe aber auf den Brief, wenn ich recht unterrichtet bin, keine Antwort bekommen: das bin ich ja gewohnt - oder es unterzeichnet eine nachgeordnete Charge.5 (...) Ich habe ja nicht behauptet, daß mit den Ostverträgen der Schießbefehl fällt. (...) erfüllt sind.6 (...) Ich würde als der Bundeskanzler ohne Aufgerechtheit die Unmöglichkeit (...) solcher Anlagen, - Wir sind ja nicht im Kriegsvustand - bei solchen Gesprächen auch zur Sprache bringen.7 (...)

Schmidt: Herr Strauß hat viel von den Schießanlagen und von dem Schießbefehl gesprochen. (...) Sie haben daran keine Verantwortung, aber sie haben beides nicht weggekriegt.8 Wenn Sie sagen, daß ich nicht jeden Brief beantwortet habe, sondern zum Teil nur beantworten lasse: (...) und das werde ich auch in den nächsten vier Jahren so machen.9 (...)

Zwischenfrage des Moderators Appel10

Kohl: (...) Es geht nicht, daß man so beiläufig diese Sache übergeht11 (...) Natürlich sind Herr Brandt, Herr Wehner, Herr Bahr und viele andere - und das weiß der Herr Bundeskanzler ganz genau - aufgebrochen zu einer anderen Politik.12(...) Als der amerikanische Präsident (...) an die (...) Bundesrepublik herangetreten ist mit dem Versuch, (...) genannt.13

Schmidt: (...) Die Verwendung des Ausdrucks Moskauer Fraktion, Herr Kohl, gegenüber meinen Freunden Bahr und Wehner und Brandt halte ich für eine von Ihnen kühl kalkulierte absichtvolle Beleidigung, und ich weise sie zurück.14 Sie wollen den Eindruck erwecken, als ob hier deutsche Patrioten sich dazu begangen hätten, im Auftrag einer fremden Macht scheinbar deutsche Politik zu treiben.15 Einer Ihrer Kollegen tut das noch etwas gehässiger, als sie es heute abend tun. Ich habe hier vor mir eine Schrift der CSU, eingeleitet von Herrn Dr. Friedrich Zimmermann.16 (...) Da wird z.B. gesagt, Herbert Wehner sei ein Sachwalter der Interessen Moskaus (...) deutsch-polinischen Vertrag (...) lag?17

Strauß: Welchen Vertrag meinen Sie eigentlich? Den Warschauer Vertrag?18

Schmidt: Ich meine den, den Sie meinen in Ihre Broschüre (...) es geht ja noch weiter19 (...) Was Sie vollends über Neutronenwaffe gesagt haben20 (...) Was Sie heute abend zum zweiten Mal gemacht haben, ist unredlich,

- weil Sie die Wahrheit und die Wählerehrlichkeit verderben!<sup>21</sup>
- Kohl: Hat Herr Bahr gesagt, das sei eine Perversion des Denkens, oder hat er es nicht gesagt?<sup>22</sup>
- Schmidt: Was Herr Bahr gesagt hat, ist eine ganz andere Sache.<sup>23</sup>
- Kohl: Mehr habe ich nicht gesagt hier.<sup>24</sup>
- Schmidt: Sie haben den Eindruck erwecken wollen, als ob wir einen solchen Plan zu Fall gebracht hätten. Zu Fall gebracht wurde er in Washinton.<sup>25</sup>
- Moderator Weiss: (...)<sup>26</sup>
- Strauß: Es sind viele schöne Worte gefallen! (...)<sup>27</sup>
- Genscher: Ich hoffe, Sie haben meine Rede vor den Vereinten Nationen gelesen?<sup>29</sup>
- Strauß: Ja, Sie halten viele schöne Reden, aber es steckt nichts dahinter!<sup>30</sup>  
(...) Für uns sind Koexistenz, Entspannung und Abrüstung praktische Notwendigkeiten (...)<sup>3</sup> Wenn Herr Schmidt sich so sehr darauf besteht, daß wir durch Bundeswehr und Bündnis geschützt sind, (...) warum Sie damals lange dagegen gesprochen?<sup>32</sup> (...) Und noch ein letzter Punkt: Herr Genscher, Sie stellen das Thema nicht korrekt dar. Sie werden doch wohl nicht glauben wollen, daß Moskau und Washinton (...) Bonn brauchen.<sup>33</sup> (...)
- Schmidt: Ich bin absolut der Meinung, daß Herr Genscher diesen Vorgang richtig geschildert hat.<sup>34</sup> (...) Daß ich der Bundeswehr nicht hätte geben sollen, was ihr zusteht! (...) Sie müssen das noch nachholen!<sup>35</sup> (...) Letzter Satz: Wir haben in der Tat den Sowjets beigebracht, daß sie reden müssen, (...) und warum ihr Einmarsch in Afghanistan unertäglich ist.<sup>36</sup>
- Kohl: Ich stelle fest, Herr Kollege Schmidt: Sie haben allerlei Bemerkungen gemacht zu dem Thema Moskauer Fraktion, aber Sie haben keine Worte gefunden (...) Sie reden um das Thema rum.<sup>37</sup>
- Schmidt: Herr Kohl, ich halte es für eine beleidigende Erklärung. (...) Es ist doch auch gedacht als eine Beleidigung. Sie wollen doch beleidigen! (...)  
38
- Kohl: Herr Kollege Schmidt, Sie hatten ja Gelegenheit, sich zu den ungeheuerlichen Äußerungen von Bahr und Wehner zu äußern<sup>39</sup> (...) Sie waren gegen den NATO-Beschluß.<sup>40</sup>

Schmidt: Ich habe eben schon mal vorgetragen, daß die Grundgesetzänderung mit meiner Stimme durchgesetzt wurde. Sie müssen nicht vom Zettel vorlesen. Sie müssen auf das achten, was man hier sagt!<sup>41</sup>

Kohl: Sie haben gegen alle diese Abstimmungen gestimmt, das ist die Wahrheit.<sup>42</sup> (...) Wer stellt hier diese Wahl unter das Thema Krieg oder Frieden?<sup>43</sup> Wissen Sie, was hier vonstatten geht mit Anzeigen wie Kanzler des Friedens (...) in unserem Land zu zerstören.<sup>44</sup> Wir alle, Herr Kollege Schmidt, wollen den Frieden. Ich will Ihnen gar nicht Ihren Friedenswillen absprechen, aber Sie tun das doch!<sup>45</sup> Das ist die sicherlich infernalischste Propagandamasche, die im Nachkriegsdeutschland getrieben wurde. Sie machen ein Geschäft mit den Kriegstoten des Zweiten Weltkrieges. Dafür schäme ich mich ... <sup>46</sup>

Schmidt: Daß Sie sich schämen, Herr Kohl, meinerwegen, das wäre das erste Mal. Sie sollten sich Ihrer selbst schämen.<sup>47</sup>

Kohl: ... daß Sie die Kriegstoten in den Wahlkampf hineinziehen. Sie säen Haß, und Sie säen eine böse Saat.<sup>48</sup> (...) Jetzt ist die Stunde, wo Sie ein ehrliches Manneswort sagen sollten. (...) daß es in dieser Wahl nicht um Krieg oder Frieden geht, sondern um den besten Weg für die Zukunft unseres Vaterlandes!<sup>49</sup>

Schmidt: (...) Ich bin in der Tat der Meinung, daß die sozialliberale Politik den Frieden sicherer gemacht hat. Wenn Sie das mit Haß quittieren, so ist das Ihre Sache.<sup>50</sup> (...) Sie haben die Fähigkeiten nicht, den Frieden zu festigen. Sie können mit Nachbarn nicht so umgehen, daß der Frieden gefestigt wird.<sup>51</sup>

#### 4.5. 토론의 평가

사회자에 의해 토론의 규칙이 정해지고 정당하고 명확한 논쟁을 하자는 바램이 있을 후에, 첫 번째 테마인 동방정책과 그와 관련된 동서독 문제가 언급된다. 이때에 헬무트 콜은 자신의 입장을 지금까지의 사민당과 자민당의 정책을 공격하는데 이용하며, 슈미트와 젠셔에 대해서는 그들이 동독정부에 대해서 친화정책을 편다고 간접적으로 비난한다 (1번 발언). 그 발언

에는 연방정부가 능력이 없고 협상에 약하다는 숨겨진 비난이 도발로서 담겨 있다.

실제 도발된 사람으로서 외무부장관 겐서는 자신의 답변에서 객관적으로 두 단계의 주장으로 대응한다: 첫째 그는 서방연맹이라는 틀 안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외무정책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콜의 비난을 반박하며, 둘째로 그는 콜과 슈트라우스를 향해서 그들이 헬싱키에서 있었던 군비축소에 대한 회의에서 “고립된 입장”을 대변했다고 지적함으로써 그들을 자극한다. 이러한 지적은 그 이외에 군비축소와 관련된 사민당과 기사당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이 두 당의 능력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수상후보인 슈트라우스는 이제 그의 입장에서 겐서의 비난 (3번 발언)을 반박하고 자신의 견해에 따르면 실패한 사민당과 기민당의 동독정책을 한 예 (동독 측이 바이에른주 경계에 자체방어시설을 설치)를 들어서 명확히 하려고 한다. 이어서 그는 구체적으로 슈미트를 향해서 그에게 아직 답변되지 않은 편지를 언급함으로써 그를 자극하려고 시도한다 (5번 발언). 슈트라우스는 더 나아가 헬무트 슈미트가 자체방어시설에 관해서 자신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언급함으로써 슈미트가 정치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눈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그와 반대로 그러한 눈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발의 두 번째 단계에서 슈트라우스는 연립정부에 의해 체결된 동독과의 협정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데, 이때에 그는 에곤 바르와 빌리 브란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국경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되게 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도발은 사실들을 단순화하는데 있다. 한편에서 바르, 브란트 그리고 동독과의 계약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국경문제와 관해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현상이 직접 관련지어져야 한다. 여기서 슈미트가 연방수상으로서 호네커와 어떻게 토론을 했는가에 대한 슈트라우스의 설명은 사민당과 기민당에 반대되는 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슈미트는 동독과의 협상이 실패했다는 슈트라우스의 비난을 무시함으로써 슈트라우스를 도발하면서 피해간다. 대신에 그는 사격명령과 장벽건설을 당시의 사민당정부와 간접적으로 관련시키고, 이제 그의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기민당과 기사당이 무능력했음을 비난한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슈트라우쓰 뿐만 아니라 콜에게도 향해졌고 더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슈미트는 다음단계에서 슈트라우쓰의 비난(5번 발언)에 대하여 기사당 정치가의 태도(신문에 편지를 사전에 발표, 9번 발언)에 대하여 비난함으로써 대응한다. 결국 다음 4년 동안 똑같이 그러한 편지를 다룰 것이라는 지적은 슈트라우쓰에게 슈미트가 오는 선거를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가 이를 통해 바라는 의도는 슈트라우쓰에 대하여 그가 선거에서 승리하리라는 희망을 간접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를 도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독 연방방위군에 관련된 슈미트의 입장에 관련된 사회자 아펠의 중간 질문이 있는 후에 사민당 정치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틀 안에서 군대의 중요성을 확신한다고 강조한다(10번 발언). 그는 동시에 그 입장을, 사민당이 이 문제에서 통일된 노선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주장을 피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이용한다.(1980년에 국방문제와 재무장문제로 슈미트의 당 내부의 지지가 심하게 흔들렸었다.) 그러나 콜은 이제 바로 이러한 약점을, 사민당 안에 “연방을 꺾대기로 만들려고 하는” 그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격한다. 일치되지 않는 사민당의 정책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분명하게 슈미트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며, 그렇게 함으로 그를 도발하고자 한다. “모스크바 당파 Moskauer Fraktion”라는 명칭으로 콜은 도발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민당의 일부가 소련에 친화적이고 서독에 해가 되는 정책을 행한다는 연상을 일깨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사민당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이러한 도발적인 비난들은 몇몇 사민당 정치가들의 이름을 언급하고(12번 발언) 바르의 말(13번 발언)을 재현함으로써 더욱 심화된다. 여기에서 그는 이번에는 슈미트의 당 내부에서의 약한 입장을 강조한다. 슈미트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그리고 그것은 수상각하께서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가 제시한 것에 따르면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슈미트는 “모스크바 당파”라는 명칭의 매우 모욕적인 성격을 언급하면서 콜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반박한다. “냉정하게 계산된 의도가 가득한 모욕”을 연설했다는 콜에 대한 비난은, 콜이 정당하고 객관적인 토론을 벌일 능

력이 없다는 숨겨진 도발을 내포하고 있다. 15번 발언을 말하면서 그는 이러한 비난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나서 슈미트는 기사당의 선거전 문서를 예를 들면서 연합당을 공격하는 16번 발언으로 넘어간다. 이때 “악의가 있는”이라는 단어는 선거전에서 연합당의 부정직함을 특징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도발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선거전문서의 인용(17번 발언)을 통해 슈미트는 그의 비난을 뒷받침하고 또한 그의 주장의 연속성이, 슈미트의 말을 일탈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슈트라우스의 반박을 통해 방해되지 않게 한다. 이어서 그는 기사당 선거문서에서 제기된 비난들을 해석하라는 아이러니한 요구를 함으로서 콜을 직접적이고 논쟁적으로 자극한다. 그는 또한 중성자폭탄과 관련된 콜의 비난(13번 발언)을, 기민당 기사당이 선거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반박한다.

콜은 직접 슈미트의 마지막 발언(21번 발언)을 언급한다. 여기에서 그는 비슷한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바르가 슈미트를(강요된) 긍정하는 답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위도를 가진 “사고의 곡해”에 대해서 말했는 지이다.

슈미트는 22번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우회적으로 피한다. 그러나 그는 간접적으로 바르의 말(13번 문장)에 대한 콜의 비판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직접적인 자극을 하려는 콜의 도발전략은 이로 인해 최소한 간접적으로 도발자의 뜻에 맞게 성공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다음의 콜의 확인(나는 여기에서 그 이상을 말하지는 않았다, 24번 발언)은 이러한 성공의 표현이다. 슈미트는 콜의 이러한 전략적인 성공을 인식하고 이제 콜의 비난(11-13번, 22번 발언)을 종합하고 일반화(25번 발언) 함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그의 주장에서 이제 중성자폭탄이 전면에 등장하고 예곤 바르에 대한 콜의 비난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때 중성자폭탄을 만드는 일을 중지한다는 워싱턴의 결정을 끌어들이므로써 그의 허용되지 않게 확대된 주장이 지지되어져야 한다.

사회자 바이쓰는 이제 재무장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제기한다. 첫 번째 답변자로서 켄서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을 제시하며 동시에 그에 관련시켜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을 가깝게 한데 대한 정부의 공로를 치켜세운다. 슈트라우스는 켄서의 설명에 직접 대답하고



겐서의 설명을 거의 수다라고 표현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26번 발언) 외무부장관을 도발한다. 슈트라우쓰가 재무장에 대한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안에 겐서는, 슈트라우쓰가 대체 유엔에서 행한 겐서 자신의 연설을 읽기는 했는지 질문한다 (그 안에 슈트라우쓰가 설명한 것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슈트라우쓰는 의도적인 겐서의 반박을 27번 발언에서 언급된 비난을 심화하면서 물리친다 (“그 연설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어서 그는 정부정책에 대해 방향을 바꾸고 연립정부가 기만과 은폐의 정책을 편다고 몰아붙인다. 여기에서 이러한 종류의 비난들 (정치적인 정신약물)은 특히 도발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는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 슈미트에게로 향한다. 이때에 그는 연방군 문제에서 슈미트의 투표태도를 비난한다. 이러한 공격은 비난의 허용되지 않은 확대를 나타내는데, 재무장과 같은 일반적인 정치적 문제가 슈미트의 투표태도와 같은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제 슈트라우쓰는 그의 비난의 표적인물을 바꾸려고 한다. 그는 다시 겐서를 향해서, 그의 말 (26번 발언)을 “발작”, “자기 과대평가” 그리고 “외람됨”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은폐정치 (31번 발언)라는 비난을 심화한다. 이러한 도발은 분노를 미리 연출하는 것 (33번 발언)을 통해 더 강화된다.

슈미트는 다음 발언자로서 슈트라우쓰의 비난 (31번, 33번 발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겐서의 주장 (26번 발언)의 올바름을 끌어들이면서 슈트라우쓰에 대항한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그와 직접 관련된 투표태도에 대한 비난 (32번 발언)을 다룬다. 그러나 여기에서 슈미트는 원래의 도발자인 슈트라우쓰를 공격하지 않고 꼴을 향해서 꼴이 병역에 복무해야 한다는, 자질을 깎아 내리는 발언을 통해 그를 인격적으로 자극한다. 동시에 수상인 슈미트는 제3제국시대의 군복무에도 불구하고 서독 연방방위군에 복무하였다고 강조한다. 슈미트는 그렇게 그 자신을 사태의 허용되지 않은 일반화에 이용하며 - 마치 연방군에 대한 시민당의 명백한 입장인 것처럼 - 이러한 방식으로 병역미필자인 꼴의 인상을 나쁘게 한다. 그의 말의 도발성은, 그가 연방군문제에서 시민당에게 1980년에 실제도 그 당이 맡았던 역할보다 더 나은 역할을 부여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그는 관객들을 의도적으로 기만한다. 36번 발언에서 그는 다시 한 번 겐서의 설명 (26번 발언) 정당화하며, 연방정부는 실제로 소련이 다시 협상

하게 만들었다는 단순한 주장을 통해 슈트라우스의 비난(33번 발언)을 반박한다.

도발 당한 콜은 슈미트가 마지막으로 한 그와 관련된 언급을 논하지 않으며, 반대로 브란트와 베너에 대한 그의 주장 (11번 12번 발언)을 새로이 고집한다. 그의 도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는, 슈미트가 신랄하게 반박 (14-17번 발언)했던 “모스크바 당파”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사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모욕하려고 한다 (28번 발언)는 자신에 대한 슈미트의 비난을 도발한다. 그럼에도 이 맹렬한 논쟁에서 마지막 말할 기회를 잡는다. (39번 발언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로운 주제영역을 찾고, “모든 것”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실제 슈트라우스에 의해 제기됐던 비난 (32번 발언)을 다시 반복한다. 그러자 슈미트는 곧바로 이 주장에 대항해서, 콜은 모든 것을 쓰여진 것에서 알려고 하지 않고 토론의 경과를 따르고 있다는 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태도의 비판을 통해서 콜을 도발한다 (41번 발언). 그는 다시 한 번, 사태와 관련된 주장을 할 수 없는 콜의 무능력을 언급한다. 콜은 이 마지막 말은 흘려두고, 슈미트가 모든 것에 반대하는 투표를 한다(42번 발언)는 그의 주장을 고집한다. 그는 이제, “전쟁과 평화”라는 도발적인 대조에서 하나의 실상을 의식적으로 뼈뼉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수사적인 질문 (43번 발언)을 통해서 새로운 테마로 넘어간다. 그는 사민당의 선거전 책자에서 몇 가지 예들을 들면서 사민당이 부정직하다는 비난을 제기한다. 그는 간접적으로 기민당, 기사당에 대한 슈미트의 공격 (16, 17번 발언)을 흉내내면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러한 비난들을 다시 끄집어낸다. 콜은 도덕적인 측면을 내세우면서 (선거전의 수단으로서 2차대전 때의 전쟁사망자) 도덕신봉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사민당 광고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 창피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그렇게 슈미트에 의해 제기된 기민당/기사당에 대한 비난 (16번 17번 발언)의 강도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콜의 도발은 사실의 기관과 은폐에 있다. (실제로 1980년의 선거전은 모든 당이 전에 없던 강도로 벌였던 대결이었다.) 이 비난에 대한 슈미트의 답변은, 그가 콜의 말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롱 조로 표현된다 (47번 발언) (“당신은 당신 말에 창피해야 한다.”). 이제 콜은 솔직한 사나이의 말을 이야기하

면서 직접적인 도전을 통해 슈미트를 도발하고자 하며, 그가 그의 뜻에 따라 이야기하게 하고 사민당 선거캠페인을 공공연히 비판하게 하게 만들려 한다.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한 콜의 지시는 여기에서 이러한 요구를 뒷받침하는데 소용이 되어야 한다 (49번 발언).

슈미트는 이러한 콜의 도전을 무시하고 대신에 반복해서 사민당 기민당의 평화정책의 성공을 강조한다. 단지 조롱 조이고 콜의 말의 실제 내용을 왜곡하는 말로 (“당신이 그것을 미움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일이다”) 슈미트는 콜의 주장에 반응한다. 동시에 그는, 한편으로는 사민당 평화정책의 명명, 다른 한편으로는 콜에 대한 미움이라는 비난을 통해서 콜을 도발한다. 이러한 도발적인 비난은 그가 기민당이 평화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함으로 더욱 심화된다. 여기서 슈미트는 연합당의 무능력을 비난하려고 하며,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정치적인 능력이 없다고 말하려 한다.

## 5. 결론

언어적 도발은 비의도적 도발과 의도적 도발로 구분될 수 있다. 비의도적 도발이 화자의 오류 또는 무지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일어나고 청자에 의해 비의도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의도적 도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 째로 화자는 상대방을 자극하려는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청자 또한 그 도발을 도발로서 파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의도적 도발은 언어적 공격의 한 부분이다.

의도적 도발은 논쟁대화에서 시작적 기능, 도구적 기능 또는 종결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도발은 다양한 강도를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언어적 도발이 표현되는 소리의 강도가 도발의 강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화자가 언제 도발의 기능들과 다양한 강도단계를 사용하는가는 각각의 대화상황에 달려있다. 그리고 도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화형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두드러진 것은 이 발화형태들이 언어관습적 관점에서 부정적 표현들, 예를 들면 책망하다, 비난하다, 평가 절하하다 등이다. 그러나 언어적 도발의 이러한 발화형태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드

물며 일반적으로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 참 고 문 헌

- 김갑년(1997): 신체적 결합으로 인한 조롱의 화행론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4집.
- 김갑년(1999): 독일어 욕설의 사용조건에 관한 화행론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7집.
- 김갑년 옮김(1999): 화행론 입문. 한국문화사.
- Dieckmann, Walter(1975): Sprache in der Politik. Heidelberg.
- Goffmann, Erwing(1975): Interaktionsrituale. Über Verhalten in direkter Kommunikation. Frankfurt.
- Kiener, Franz(1893): Das Wort als Waffe. Zur Psychologie der verbalen Aggression. Göttingen.
- Schank, Gerd(1987): Linguistische Konfliktanalyse. Ein Beitrag der Gesprächsanalyse. In: Schank, Gerd/Schwitalla, Johannes(Hg.), Konflikte in Gesprächen. Tübingen.

### Zusammenfassung

Sprachliche Provokation gehört zur alltäglichen Kommunikation des Menschen. Man findet sie in den verschiedensten Formen und Intensitätsgraden. So kann eine Provokation aus einer ironischen Andeutung oder aus einem lauthals vorgetragenen direkten Vorwurf bestehen - um nur zwei extreme Beispiele zu nennen - das Ziel des Sprechers, einen anderen damit zu reizen, bleibt immer gleich.

Die vorliegende Arbeit stellt einen Versuch dar, sprachliche Provokation näher zu bestimmen und anhand von Beispielen zu untersuchen, um so einen Katalog sprachlicher Provokationen zu erstellen. bei dieser Arbeit kann es daher nicht darum gehen, eine

umfassende Darstellung von Provokation in der Sprache zu liefern, sondern die Arbeit versteht sich vielmehr als ein Versuch, einen möglichen Zugang zu diesem kaum untersuchten Thema aufzuzeigen.

김갑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4-7 강남하이츠빌라 301호  
Tel.: 02-3486-1198  
knkim3@thrunet.com